제주지역 오미자 비가림하우스 재배에 알맞은 지주 형태 개발

활 용 분 야	인삼・약초									
활용내용요약	o 하우스 비가림 재배시 수량성증대를 위해 덕형과 울타리형 유인 방법 비교 및 개화기 안정적인 착과와 태풍내습에 의한 피해방지 o 품질향상 위해 높은 이랑재배 및 점적관수시설 o 잡초관리 위한 잡초방지 부직포 피복으로 제초인력 절감 o 하우스 온도관리(고온기) 및 풍매(바람) 수정을 위한 측면 비닐 미 피복									
활 용 구 분	사업화		현장실증	○	교육・현장연시	○	농업기술길잡이			
소 과 제 명	새로운 작목 도입연구:							세부사업명		
세 부 과 제 명	오미자 중산간지 비가림 하우스이용 재배가능성 검토							경상		
검 색 어	오미자, 중산간지, 비가림하우스, 재배가능성							개발년도	2012	
과 제 구 분	어젠다	07		대과제	18		중과제	46		
세 부 구 분	분야	V2	작목	IC031930			기술유형	C05		
연 구 개 발 자	소속기관		성명	전화번호			E-mail			
	제주도원									
공 동 개 발 자	제주도원									
	제주도원									
	제주도원									
	제주도원									
	제주도원									
	제주도원									
	제주도원									
	제주도원									

1. 현황 및 문제점

○ 오미자 재배환경은 해발 300~500m의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 분포하며, 2년생 가지에 결실하는 호광성 식물임

○ 전국 재배면적이 1,749ha, 생산량 6,892톤으로 복분자에 이어 2대 약용작물로 급속한 성장추세이며, 한약제보다 식품으로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2011)

○ 제주지역 북오미자는 1990년대까지 일부농가에서 재배하였으나 태풍(바람) 및 호우에 의한 자연재해에 의하여 노지 재배가 어려움

2. 과제 착수 배경 및 사전협의 내용

○ 과제 발굴・심의

- 제주 관광상품 중 오미자 제품의 판매액이 70억 정도로 추정됨
- 제품원료인 오미자는 대부분 경북 문경, 전북 진안에서 구입 활용함으로써 제주특산 관광상품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공회사에서도 제주산 오미자 원료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으로써 제주특산 관광상품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공회사에서도 제주산 오미자 원료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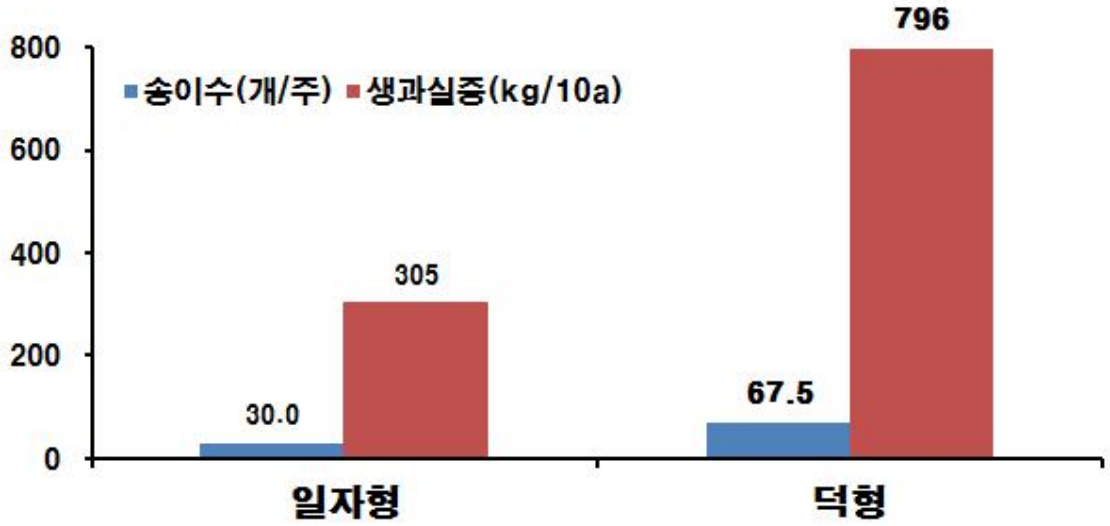
3. 기존 영농활용기술과의 연계

○ 기존 영농활용 없음

4. 개발기술 적용 가능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5. 현장활용 내용



○ 하우스 비가림 재배시 수량성증대를 위해 유인 방법 중 덕형과 일자형(울타리형) 유인방법 비교 및 개화기 안정적인 착과와 태풍내습에 의한 피해방지
- 높은 이랑재배 및 점적관수시설, 잡초방지 부직포 피복
- 하우스 온도관리(고온기) 및 풍매(바람) 수정을 위한 측면 비닐 미 피복

○ 재식거리 : 2.75m * 0.4m(5.5m 하우스 3줄 재배, 재식주수 900주/10a)
덕형 유인높이 1.5m

6. 현장활용 기대효과

○ 유인방법으로 울타리형보다는 덕형시설재배로 수량성 증대
- 울타리형 보다 덕형재배수량성이 261%증가(305 → 796kg/10a)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o 증가되는 비용: 107,714원/년 - 덕 설치비용 : 일자형에 비해 2배 소요 - 계(A) : 107,714원 ※ 덕 설치 내구 연한 : 7년	o 증가되는 이익 : 5,892천원 - 수량증가 : 3년 평균 261%(5,892,000원) 491kg×12,000원 = 5,892,000원
o 추정 수익액(B-A) : 5,784,286원 - 5,892,000-107,714= 5,784,286원	